

Dow Corning, Silane 40% 확장

미국 및 일본 생산능력 확대 ... 주로 환경친화 타이어 생산에 이용

Dow Corning이 최근 2년 동안 총 6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미시건주 Midland 및 일본 Chiba 소재 Silane 생산능력을 40% 이상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생산능력은 환경친화적 타이어 제품, 즉 <Green Tire>에 사용되는 Precipitated Silica를 취급하는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며 플라스틱 및 고무 보강제 기능을 하는 미네랄 필터를 처리하는데도 사용될 전망이다.

Dow Corning은 1100만달러를 투자해 Midland에 유기기능성 실리콘 1만6000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2001년 가동에 들어갔다. Midland 소재 유기기능성 실리콘 플랜트는 주로 환경친화적 타이어용 Silane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페인트 및 잉크 첨가제용 Organosilane, 보강제 및 방수처리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전자소재용 Chlorosilane 합성에 사용되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Silane 분야에서 Dow Corning의 최대 경쟁기업으로는 최근 OSi Specialties를 인수한 GE Silicones과 Degussa의 Siventio 사업부가 거론된다.

SRI Consulting에 따르면, 세계 실리콘 및 Silane 시장규모는 1998년 67억달러에서 2002년 약 73억달러로 증가했다.

국내에는 Dow Corning과 GE Silicones, 독일 Degussa, Wacker Chemicals, 일본 Shin-Estu Chemical, Chisso 등이 Silane을 공급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13>